

-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253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3장 17~26절(신191)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354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7월 26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세종대왕은, 법을 집행할 때, 고의성과 무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 관용을 베푼 것으로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에 관한 일화입니다. 한 관리가, 국가의 중요한 문서나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행정적인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신들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그가 알고도 조정을 기만하려 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미련하고 무지하여, 알지 못한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지은 과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라며, 징계를 낮추거나,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설교의 요약>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 중 뒷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앓은뱅이 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놀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행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생명의 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만진,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관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으나,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관대하게 호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동이, 그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저지른 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자신이 직분을 받아, 예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거지’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여 잘못할 수 있고, 나도 무지하여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지중에 지은 죄와 잘못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무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이로이(καίροι)’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카이로스(καίρος)’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과 관련하여,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시간의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달력과 시계로 측정하는,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나 기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와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19절에서 우리말로, ‘새롭게 되는’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나프쉬크세오스(ἀναφύξεως)’라는 단어인데, 원래,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던 상태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새롭게 되는’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나프쉬크세오스(ἀναφύξεως)라는 단어는,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의미 외에, ‘상쾌하게 하다’, ‘신선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시원케 하시며, 유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누기〉

1. 죄악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유쾌한 삶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포용의 자세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

〈기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을 때, 지은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관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이웃들을, 관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실 때, 고집을 부리며 거부하지 않도록, 알면서도 죄를 짓는, 강박한 마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회개하여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며, 심령을 기쁘게 하시며,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평생을 통해,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